



# IMF경제위기와 브라질 진보진영의 분투

필자는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브라질노동자당(PT)과 브라질노총(CUT)의 공식초청으로 브라질을 방문한 <국민승리21>의 브라질 연수단에 참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1. IMF위기와 브라질

흔히들 브라질하면 삼바축제와 축구를 떠올릴 것이다. 남미의 정열적인 문화와 함께 브라질이 우리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자연·문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엿비슷한 정치·경제·사회운동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과거 군사정권에서의 학생운동과 카톨릭운동의 민주화투쟁 경험으로부터 이후 폭발적인 노동자운동의 성장, IMF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브라질 좌파진영의 경험과 고민은 낯설지 않은 것들이었다.

필자는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브라질노동자당(PT)과 브라질노총(CUT)의 공식초청으로 브라질을 방문한 <국민승리21>의 브라질 연수단에 참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IMF경제위기를 맞은 지 얼마되지 않은 브라질은 아직 어수선했다. CUT를 비롯한 브라질 노조진영은 투쟁방향을 논의 중이었고, PT의 정체 대응 역시 아직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했다. 또한 브라질 진보진영차원의 투쟁 역시 투명하게 조직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8년 대통령선거에서 PT 후보였던 르라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데에 우리를 당할 사람은 없다'는 이들의 낙관 속에서 어떤 정책과 운동적 실수도 이들을 허물어뜨리기는 어려울 것처럼 보였다. "노조든 정당이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는 한 PT지도자의 말처럼 이들의 강한 변혁지향성은 입장과 처지를 불문하고 이들을 강하게 묶어주는 토대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 글에서는 PT와 CUT의 주요지도부의 면담결과를 토대로 IMF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브라질 좌파진영의 상황인식과 대응을 주로 소개하겠다.

## 2. 브라질의 최근 정치경제상황

브라질은 인구 1억6천만명, 수도 브라질리아와 26개 주, 총 6천개의 도시로 구성된 연방국가다. 국토의 넓이는 한국의 80배에 이르고, 최근 국내총생산(GDP)은 8천억 해일 수준인데 이 가운데 약 32%를 세금으로 거둬들여 정부재정수입으로 삼고 있다. 1997년 브라질은 3%의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1999년 3월 현재 19%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상파울로 주는 약 6백여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고, 브라질 국내총생산의 40%를 만들고 있다. 상파울로시와 상파울로 근교(ABC지역 포함)의 실업자수는 1998년 5월기준으로 총 1백 6십 5만명에 달해 18.9%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브라질의 실업률은 매년 2~3%씩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1989년 콜로로정부 신자유주의 도입

대부분의 남미국가들은 1960~7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폭넓게 도입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저상장경제체제를 낳게 했고, 이에 따라 노동자계급이 오히려 줄어들었

다. 그러나 브라질의 경우 군사정권과 이후 순조로운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경제는 고성장을 거듭했다. 이는 노동자계급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객관적 조건이 됐던 것이다. 브라질은 세계 8번째 경제大国으로 성장했지만, 빈부격차 역시 가장 큰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됐다.

1989년 콜로로 정부가 들어서면서 브라질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콜로로 정부는 시장·무역·자본개방, 재정개혁, 민영화, 경제규제 철폐 등의 경제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자율 45%, 3월9일 IMF 구제금융협약 맺어

브라질은 최근 이자율이 약 45%까지 치솟았고, 1월 달러당 1.2해일(브라질 화



브라질 노동자당(PT)의 지도자이자 대선후보였던 플리

폐단위)이었던 환율이 1주일만에 달러당 2해알까지 오르는 등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외환불안이 본격화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 5개월간 4배의 달러의 외환이 국외로 유출됐다. 카로도주 브라질 대통령은 3월9일 IMF와 구제금융협약을 맺고 93억달러의 외채를 들여왔다. IMF와 카로도주가 합의한 경제정책 목표는 연 17%의 인플레, 경제성장을 -4%, 이자율 28% 등이다. 그러나 카로도주정부가 합의한 경제정책 목표보다 브라질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예측이다.

#### 미국연방은행 개입 가능성으로 경제식민지 우려

브라질경제와 대외무역은 특정국가에 대한 편중없이 독립적이다. 브라질의 대외무역량은 유럽이 28%, 남미공동시장이 30%, 미국이 25%를 차지했다. 그러나 3백 30억 달러인 브라질의 외환보유고가 2배의 달러까지 떨어진다면 미국연방은행이 브라질연방은행에 개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브라질은 미국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브라질을 아메리카자유무역시장(AILCA)에 적극 편입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사회보험제도의 민영화로 사회보장 미비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는 아직 미비한 편이다.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사보험(INS)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생활보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PT는 사회보장 보험의 민영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65세 이상부터 주어지는 연금을 받기 위해서 35년간 일해야 하고 최소 5년 동안 세금을 내야 한다. 젊은이들과 40세이상의 시민들은 연금도 못 받고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거의 없는 나쁜 상황에 방치돼 있다.

#### 경제위기로 카로도주정부 지지율 급락

1998년 대선 당시 경제위기를 경고하는 PT를 '세계 멸망을 불러오는 당'으로 몰아붙였던 카로도주 정부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IMF 구제금융을 맞이해 코너로 몰리고 있다. 카로도주 정부는 선거 당시 '경제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브라질 국민들 중에서 '현정부에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긍정적인 입장보다 10% 더 높았다. 1998년 말 대선에서 PT의 룰라 후보는 총투표수 7천 5백만 중에서 2천 1백만표를 획득했다. 현재는 룰라를 지지한 31.7%의 브라질 국민 이외에도 30%정



상파울로에서 열린 3·8 여성대회 집회에 참가한 브라질 노동자들

도의 국민들이 더 PT의 정책적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 3.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PT의 정책

#### 신자유주의의 반대, 새로운 브라질 건설

PT는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사회민주화를 추구하고 있다. 국민에게 내세우고 있는 정책으로는 첫째 신자유주의의 반대, 둘째 새로운 브라질 제안정책으로 결약된다. 높은 경제성장률과 공

평한 분배를 추구하는 정책, 필요없는 수입을 줄이는 절약 정책, IMF·미국은행 등 세계금융기관에 의존하지는 않되 세계적으로 개방돼 있는 브라질의 진실이 그것이다.

PT는 지난해 8월 대선기간 중에 한국, 타이, 인도네시아, 러시아 상황을 예로 들며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위기의 해결책 또한 제시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이자를 인하
2.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고정환율제 세택
3. 필요없는 수입제한
4.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공공투자 확대
5. 중소기업, 농촌 투자 확대를 통한 국내 시장 강화·부양
6. 해양화의 가치를 미국화폐에 비례 천천히 떨어뜨릴 것

IMF 협약 파기, 고정환율제 도입,  
국제연대 강화

IMF 경제위기를 맞고 난 뒤 현정부의 경제위기 극복대책은 정부차원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IMF의 신자유주의적

요구를 끝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IMF가 제시하고 현정부가 합의해준 경제정책목표는 더 많은 실업, 더 많은 부도, 더 많은 폐업, 농촌의 부채증대를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 PT의 입장이다.

PT는 현재 IMF협약 과기와 고장환율 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국가부도사태를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PT는 브라질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힘을 유지해야 하고 브라질 화폐의 가치를 높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IMF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빈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원칙이다. 이를 위해 PT와 CUT는 한시적인 국가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할 수

도 있다는 입장이다.

PT는 브라질 정부가 긴급고용창출정책과 재개발 투자확대정책을 브라질 자체의 능력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브라질의 높은 경제적 독립성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남미공동시장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키우는 문제 역시 중요하다.

국제부기자본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PT의 주장이다. PT는 정부가 첫째 경제계획을 가져야 하고 우선정책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국제부기자본의 호흡을 차단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한 나



(국민승리21) 브라질 민수단이 노동자당(PT) 본부를 방문하여 공개자와 면담하고 있다.

라에 돈이 들어오면 일정기간 못 나가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PT는 지난 해 남미좌파정당회의를 상파울로에 유치해 논의하는 한편 남아공,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과의 국제연대활동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 PT, 3개 전선을 중심으로 투쟁

PT는 IMF와 카르도주 정부에 맞서 3개의 전선을 중심으로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사회연대전선이다. 노조, 풀뿌리대중운동(popular movement), 가톨릭운동, 변호사단체 등이 함께 민중연대투쟁을 벌여내는 것이다. 둘째 의회전선이다. 상원과 하원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치적 반대는 물론 정책제안활동을 병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셋째 주지사전선이다. PT는 27개 주의 주지사중에서 6명의 좌파주지사와 1명의 우호적인 중도파 주지사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 브라질의 주요한 주들을 포괄하고 있는 이들 주지사들을 통해 브라질의 정책기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 친위쿠데타 가능성도 예측돼

IMF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PT의 투쟁과 정책제안활동에 가장 어려운 점은 카르도주 대통령이 재선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2년까지 현정부의 임기는 계속된다. PT는 카르도

주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는 정권 자체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경제위기 및 사회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PT는 야권이 현정책에 반대(파업)하는 힘을 갖고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이 힘이 없어 경제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군사정권은 아니지만 백색쿠데타의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즉 국회에서 모든 권한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는 정치적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PT는 이 정치적 상황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 4. 최근의 브라질 노조운동상황

CUT 1천9백만 노동자를 대표,  
6백만 조합원 참여

브라질의 경제활동참가인구는 대략 7천만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54%가 비공식(informal)노동자다. 브라질의 근로계약방식은 먼저 3개월의 임시근로계약을 맺고, 이 기간이 지난 뒤 정식직원으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다. 현재 54%의 노동자가 3개월 임시근로계약조차 맺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이들 비공식노동자는 월차휴가도 없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 있다. CUT는 비공식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브라질노동자는 세 가지 세금을 내게 되어 있다. 월급의 10%에 이르는 연금보험료, 5%의 근로소득세,

1.2~2%의 조합세가 그것이다.

브라질에는 공식노조체계-법적노조체계-가 있고 조합세가 의무화돼 있다. CUT는 조합세에 반대하고 있지만, 조합세 폐지법안이 이번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지는 못했다.

CUT(위원장 빈센치노)는 총 2천 7백 개 노조, 1천 9백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다.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은 총 6백만명 정도이고 26개 주에 CUT가 조직돼 있다. 금속노조 조합원의 76%가 조합비를 내고, 정유회사 조합원은 1백% 조합비를 내고 있다. 은행노조 역시 높은 조합비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다. 건설노동자의 경우 CUT참여가 적다. 상파울로 건설노동자 10만명 중 조합비를 납부하는 사람은 6천명정도이다.

#### CUT의 활동원칙 · 특성

CUT가 소개한 조직의 원칙 혹은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적인 노조이다.
2. PT, 우파, 당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등 정치적 성향이 다양한 노동자들이 모였다.
3. 토론을 선호한다.
4. 권력을 모으지 않고 연방분권적이다.
5. 사용자, 가톨릭교회, 정부, 정당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지향한다.
6. 노조 목적은 노동자의 직접적이고 역사적인 이해실현에 둔다.

7.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공동체 사회를 지향한다.

CUT는 집단이기주의와 경제적 이해만을 추구하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가톨릭 진보운동, 농촌 무주택자 운동, 학생, 환경운동 등 풀뿌리대중운동(popular movement)과 연대하고 있다. CUT는 지도부와 상근자 모두 30%이상이 여성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CUT 중앙본부는 국제, 인종차별, 여성, 환경보호 등등의 분과를 갖고 있는데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과 함께 정체제안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젊은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문화에 대한 관심 역시 각별했다. 일례로 필자가 방문한 상베르나르도 금속노조회관에서는 힙합음악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의 얘기와 고민을 담은 비디오 시사회를 열기도 했다.

CUT는 비정규직 조직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 CUT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한 뒤 CUT에 참여할 경우 지도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CUT와 정당과의 관계

CUT의 노조지도자들이 시의원 혹은 주의원에 당선되면 노조를 떠난다. CUT 출신의 정치인은 PT소속일수도 있고 다른 당 소속일 수도 있다. CUT에서 정책 프로젝트를 제안할 경우 CUT출신의 정

치인은 당소속을 막론하고 이를 들어주고 정책에 반영한다. 현재 CUT출신 정치인은 연방상원의원 2명, 연방하원의원 41명, 주지사 2명이다. CUT출신 정치인의 95%가 PT소속이다.

1998년 대선에서 CUT는 내부토론을 거쳐 룰라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조직적으로 결정했다. CUT가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기로 공식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물론 CUT조합원이나 CUT를 지지하는 노동자가 항상 PT에 투표하는 것은 아니다.

CUT는 지난 대선에서 PT의 룰라후보를 지지했던 CUT이외의 다른 노조들을 사회연대전선에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5. 브라질 진보진영 방문기를 끝내며

한국과 브라질이 맞고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은 다르다. 특히 한국과 브라질이 각각 이룩해온 운동적 성과는 평면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브라질 좌파진영이 이룩한 성과와 현재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몇 가지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① 브라질의 노조운동, 정당, 기초대중 운동을 불문하고 지도부와 상근인력에 30%이상의 여성참여가 의무화돼 있다는 점이다. 세상의 절반이라는 여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와 관행에 있어 실질

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② 노조, 정당 등의 대중적 기초를 확대하기 위한 젊은이들과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다. CUT는 연방차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CUT의 구조자체를 개편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노조차원에서는 힙합 음악 등 젊은 노동자들의 문화적 욕구를 직접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PT 역시 문화를 소홀히 여긴 것은 실수라고 판단하고 다양한 문화적 접근들을 시도하고 있다.

③ 노조, 환경·문화·여성 등 기초대중운동, 주민 혹은 빈민들의 자율적인 운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PT가 장악하고 있는 각급 정부기관과 PT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운동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④ 노조, 정당지도부의 구성에 있어 집단지도체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입장과 차이를 갖고 있는 집단과 세력을 아우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지도부의 지위를 개방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중적 실력과 성과에 입각한 최고지도력을 구축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IMF경제위기를 먼저 겪은 바 있는 한국의 노조와 진보진영이 브라질에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현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바꾸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1999년의 힘찬 투쟁이 그 답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